

행복누리센터 조성 한창

순창군, 구보건의료원 건물 리모델링 추진·공정률 40%

순창군이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행복누리센터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보건의료원이 2015년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구보건의료원 건물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행복누리센터 조성사업 공정률이 40%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가 반가운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

군은 올 2월 공모를 거쳐 구보건의료원을 '행복누리센터'라고 이름 짓고 ▲해피니스 PCN센터 ▲순창군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4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피니스 PCN센터는

Pregnancy(임신), Childbirth(출산), Nurture(양육)의 토달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자체 저출산 극복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특별교부세 4억5천만원을 확보해 사업비 마련에 힘을 보탰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PCN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산모센터, 교육실, 어린이 놀이공간 등이 조성돼 산모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관내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관리가 철저해 질 것으로 기대돼 유아를 둔 부모들의 기대가 높고 있다.

순창군은 3년에 성공한 황숙주 군수 3대 비전 중 하나인 '인구 4만 달성'에 있어 출산율 증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순창군은 2년 연속 합계출산율 1.8명으로 2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한 만큼, 행복누리센터 완공이 출산율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사회에 큰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의 커뮤니티와 지역내 소수속감 형성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최종국 재무과장은 "행복누리센터는 사내와의 인접성이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내부시설도 훌륭해 군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서 "순창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절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환주 시장은 내년도 사업을 연내 이취직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사업 차질없이 준비해야"

이환주 남원시장·남원사랑 화합의 날 맞아

이환주 남원시장은 3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12월 남원사랑 화합의 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 문제점, 중점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종 행정절차와 용역설계 등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을 뗄 수가 없다"며,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사전

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연말을 맞아 따뜻한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행정적 지원 이외에 또 다른 연결망을 통해 정서적 빈곤을 느끼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자"고 당부했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조합공동사업 법인 박해근 대표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국가발전 전에 앞장선 시민 14명과 공무원 15명 등 29명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청정임실 브랜드 확고하게

군 공무원 청렴·부패방지 교육

공무원 청렴과 친절을 지역발전의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임실군이 '부정부패 없는 청정임실'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임실군은 3일 농민교육장에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은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등 청렴·부패에 취약할 수 있는 직원 등이다.

목적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취지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당신의 브랜

드는 안전하십니까?'로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는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청렴교육 전문강사 장정아 한국국토정보공사 차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공익신고 등 청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은 사업자 이해관계의 신고 및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날 교육은 부정부패와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해 현실성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실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공직

자들의 친절교육도 병행했다. 공직자의 기본정신은 청렴과 친절인 점이 강조되면서 친절과 청렴의 의미와 관계를 재검토 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최근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공직자 청렴도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임실군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의 미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민원인을 항상 친절하게 맞이하는 자세와 공직자로서 청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전 직원이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청렴문화를 정착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는 전국 최고 시책사업으로 발굴한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읍면동 280곳, 20,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음과 건강을 선사하기 위한 운영에 들어갔다. 체조강사가 주2회 1시간씩 신나는 음악에 맞춰 건강체조 실시, 식생활 속 나트륨 줄이기, 심뇌혈관질

환 예방교육,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기본 건강검진과 치매검진·우울증 검사, 운동매트, 밴드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어르신들의 근력강화 등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마련된 시책사업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255곳에서 18,639여명을 찾아갔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르신 99%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겨울은 특히나 어르신들이 싱싱생생 건강교실과 함께 웃음이 가득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통의 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웃음과 건강을 선사하는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에 들어갔다.



순창군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섰다.

순창군,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교육

순창군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섰다.

3일 군은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실문호 과장이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장애인에 대해 갖는 시각의 사례발표를 통해 교육생

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과장은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에 의한 발생률이 높다"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 차별하지 말고 차이를 인정하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등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남원시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최대한 빨리 급여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 3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 등 홍보에 나섰다.

완화된 기준에서는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구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의료급여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자가구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가거나 만 30세 미만 시설보호(보호종료) 아동일 경우,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강원주 주민복지과장은 "아직은 조건부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이지만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기준을 통해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소나무류 이동 단속

임실군은 인위적인 소나무류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으로 지난달 27일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14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군은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농가, 원목 생산업자, 제재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임실·청송·운암·삼계·강진·덕치면 지역에서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